

떠나고 싶은 자와 남고 싶은 자 '마지막 경기' 운명은?



KIA 오늘 삼성 원정·내일 한화 홈경기 시즌 마감

삼성전 선발 토마스 "잔류 위해 최고 모습 보일 것"

한화전 선발 양현종 "유종의 미 거두고 해외진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낸 토미 라소다는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는 말을 했다.

성적을 떠나서 KIA 팬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기대의 봄을 맞고, 아쉬움의 여름을 보냈던 팬들에게 마지막 날이 기다리고 있다.

2년 연속 8위에 머물며 이번에도 일찍 찾아오게 된 날, KIA는 16일 대구에서 삼성과 원정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17일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와 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마지막 두 경기는 좌완 토마스와 양현종이 책임진다. 원정과 홈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두 사람은 잔류와 진출이라는 다른 목표를 안고 마운드에 오른다.

토마스에게는 잔류를 위한 마지막 여필 무대다. 시즌 중도에 홈튼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토마스는 "KIA에 잔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새로운 팀에 이내 적응을 하며 덕아웃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마운드에서의 점수는 부족했다.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피칭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5회 이후의 승부가 쉽지 않았다. 승운도 따르지 않으면서 7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3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간신히 첫 승을 챙겼다.

잔류라는 목표를 위해 토마스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는 올 시즌 3승12패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삼성. 일단 패배에 자존심이 상한 팬들에게는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고 싶은 승리이기도 하다.

에이스 양현종은 새로 연 챔피언스필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됐다. 4월1일 NC와의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른 첫 투수로 이름을 올린 양현종은 이 경기에서 8이닝 5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양현종의 올 시즌 성적은 16승8패. 14일 20승 고지를 밟은 넥센 벤헤켄에 이어 토종 선발 최다승이다. 탈삼진도 157개를 뽑으며 탈삼진 부문 전체 4위, 국내 선수 1위 자리에 올라있다.

3.03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2패를 기록하며 특히 안방에서 강했던 양현종. 올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자격을 얻어 해외진출의 꿈에 도전할 수 있다. 그 꿈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프로 선수에게 해외진출은 당연히 욕심이 나는 기회이자 목표다. 그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보여줬던 양현종의 매서움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2014시즌의 끝을 승리로 장식해야 할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이 있다.

두 사람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승리' 하나다.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과 최종전을 책임지게 된 토마스와 양현종이 2014시즌 아쉬움을 달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승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태극전사들 소속팀으로

오른 발목 부상 박주호 제외 전원 복귀

내달 14일 요르단·18일 이란과 평가전

10월 축구 대표팀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친 '1기 슈틸리케호' 해외파 선수들이 발목을 다친 박주호(마인츠)를 제외하고 모두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발목을 다친 박주호만 치료 때문에 출국 일정을 늦췄다"며 "나머지 해외파 선수들은 이날 소속팀으로 모두 돌아갔다"고 밝혔다.

'1기 슈틸리케호'는 애초 국내파와 해외파를 합쳐 22명이 소집됐지만 김진수(호펜하임)와 구자철(마인츠)이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한 교원(전북 현대), 조영철(카타르SC), 장현수(광저우 부리)가 대체 소집돼 총 23명이 파라과이 및 코스타리카 평가전을 치렀다.

대표팀은 지난 10일 파라과이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고, 14일 코스

타리카 평가전에서는 1-3으로 패하며 10월 평가전에서 1승1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박주호가 코스타리카 평가전에서 전반 16분 상대의 거친 태클에 오른쪽 발목을 다친 게 아쉽다.

박주호는 이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발목의 부기가 빠지지 않아 구단의 배려로 출국 일정을 17일로 미뤘다.

박주호의 에이전트는 "부기가 남은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은 하게 되면 부상이 악화할 수 있다는 마인츠 구단의 소견에 따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요르단(11월 14일) 및 이란(11월 18일)과 원정으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기보배 국대 선발전 1위...태릉 복귀 눈앞

'신궁' 기보배(광주시청)와 윤옥희(예천군청)가 태릉선수촌 복귀를 타진할 문턱에 다가섰다.

기보배는 15일 예천진흥공장에서 열린 2015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에서 9회전까지 배점합계 57을 기록해 1위를 달렸다. 윤옥희는 50점을 얻어 4위로 뒤를 이었다.

강재영(학성여고), 김미정(계명대)은 53점으로 2, 3위를 기록했다. 총 16명이 참가한 이번 선발전에서 8위 안에 들면 작년에 선발전을 통과한 8명과 함께 내년 태극마

크를 놓고 결전을 치를 자격을 얻는다. 이번 선발전은 16일 10, 11회전으로 막을 내린다.

기보배, 윤옥희는 작년에 세계양궁연맹(WA) 랭킹 1, 2위를 달리며 대표팀의 에이스를 놓고 경쟁했다. 그러나 둘은 선발전에서 부상과 컨디션 난조를 겪다가 탈락해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했다.

남자부 선발전에서는 이창환(코오롱), 박규석(공주시청), 신재훈(국군체육부대)이 9회전까지 배점합계 1~3위를 달렸다.

/연합뉴스

기적의 캔자스시티 월드시리즈행 1승 남았다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

볼티모어 2-1로 잡고 '3연승'

'기적의 팀'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또 한 번 역전승을 일궈내며 대망의 월드시리즈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캔자스시티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보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3차전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2-1로 꺾었다. 7전 4승제 ALCS에서 파죽의 3연승을 달린 캔자스시티는 남은 네 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선취점은 볼티모어가 뽑았다. 볼티모어는 2회초 1사 후 스티브 피어스와 J.J. 하디의 연속 2루타로 먼저 1점을 얻었다.

캔자스시티는 4회말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만든 1사 만루의 기회에서 알렉스 고든의 2루수 땅볼 때 3루 주자 로렌조 케인이 홈을 밟아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캔자스시티는 6회초 3루수 마이크 무스타커스의 호수비로 흐름을 가져왔다. 무스타커스는 파울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3루 관중석 쪽으로 몸을 던지는 투혼으로 공을 잡아냈다.

무스타커스의 호수비로 돌아오른 분위기는 공수교대 후 그대로 이어졌다.

캔자스시티는 6회말 빌리 베틀러가 바뀐 투수 케빈 가우스먼을 상대로 김숙한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때려내 캔자스시티는 2-1 역전에 성공했다.

경기를 뒤집은 캔자스시티는 7회부터 리그 최강의 불펜진을 가동했다. 켈빈 에레라(7회)·웨이드 데이비스(8회)·그렉 홀랜드(9회)는 3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피칭으로 승리를 지키고 볼티모어를 베팅 끝으로 몰았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포수 페리즈가 15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를 2-1로 이긴 후 인터뷰를 하던 중 내야수 마우스타카스가 뿌린 양동이 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연합뉴스